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분창 정책국장입니다. 언론 보도의 편의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교육 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밝힙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정부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빚어진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요구가 국민적 대세임(리얼미터 여론 조사 89.8%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는 그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 대입 정시 확대는 오히려 과거 교육으로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 심각성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의 6개 대책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회의에서 내놓은 대책과 우리의 대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에 대한 국민 여망에 한참 미흡한 발표입니다. 대입의 공정성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요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자체를 중단하는 일을 포함해 대책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대책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발표 속 반영 정도	비 고
제1영역	특권 대물림 교육 실상 지표 조사 법제화	×	
제2영역	수직적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출범	×	
제3영역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법제화	×	
제4영역	자사고 외고 등 특권 고교의 일반고로의 전환	○	
제5영역	대입 공정성	×	정시 확대는 교육 개혁 역행
제6영역	일반 학교 및 소외 계층 적극적 배려 대책	?	

특권 대물림 교육 해결을 위한 6대 세부 방안

- **【조사 기구 및 지표 개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와 같이, 정부 내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 위를 구성하고, 격년 등 정기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해, 대책안과 함께 발표.
- **【대학서열체제 극복 공론화】** 특권 대물림 교육 경쟁의 핵심 이유인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구'를 발족하는 등 국민의 힘으로 이 난제를 풀어갈 구조를 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및 추진.
- **【채용 시장 영역】** 출신 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로 대학 서열체제 극복을 위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대입과 로스쿨 등 입시에도 이를 반영함.
- **【고교체제 영역】** 조국 교수 사태에서 확인된 바, 외교, 자사고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학교의 체제로 나타난 것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 영재고/과교의 입시 개혁.
- **【대입 공정성 영역】** 학종 비교과 폐지와 '교과 세부 특기사항' 및 '수행 평가' 개선
- **【보완 영역】** 일반 학교 및 소위 흡수저 계층 위한 적극적 배려 대책(△선 취업 후 진학 재직자 전형 확대, △취업과 진학 때 지역/계층 균형 할당제 확대 △일반 고교의 역량 지원 △국영수 교과 학습 부진에 대한 책임교육제도 등)

